

중앙선 문수~마사간 철도이설구간(10.4km) 지난 27일 개통

- 영주댐 담수일정에 맞춰 2개월 앞당겨 개통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영주댐 건설로 수몰되는 기존의 중앙선 문수~마사간 10.4km 철도를 담수지역 밖으로 이설하는 공사를 완공하고 지난 27일 개통식을 가졌다. 25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사업은 2011년 8월 착공하여 1년 10개월 만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2013년 5월 영주댐 담수 시작 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전 구간 동시착공, 터널굴착과 콘크리트라이닝 병행 시공 등으로 예정 공기보다 2개월 앞당겨 완공되었다.

중앙선 문수~마사간 철도 이설이 완공됨으로써 영주에서 안동간 철도 연장이 36.9km에서 35.3km로 1.6km 단축되었고 운행시간은 34분에서 28분으로 6분 단축되었다. 한편, 2018년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까지 완공되면 시속 250km급 고속열차가 운행되어 청량리~영천간(L=294.5km) 운행시간이 4시간 56분에서 1시간 48분으로, 3시간 8분 단축되어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가 함께 희망의 나무심기 실시

- 대전 중구 어남동에서 소나무 1000여 그루 식재 -

공단은 지난 4일 제68회 식목일을 맞아 대전 중구 어남동에서 중구청 소유 임야 0.7ha에 소나무 1000여 그루를 심는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시 숲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광재 이사장과 윤정일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단직원 50명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2013년에 입사한 신입직원들과 함께 노사 대표들이 협동하여 나무심기에 동참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자원의 가치를 되새겼다. 김 이사장은 "이번 나무심기를 통해 도시생활권 인근에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국정과제)과 탄소흡수원 확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식목행사 참여 소감을 밝혔다. 공단은 2004년 창립 이래 지난 9년간 90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김광재 이사장, 미얀마 철도교통부 장관 응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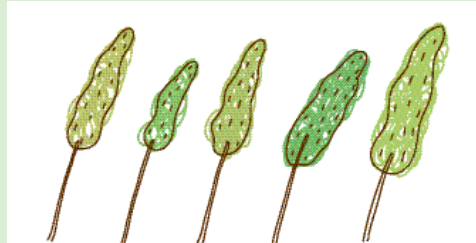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3일 공단을 방문한 제이아아웅(Zay Yar Aung) 미얀마 철도교통부 장관을 맞아 양국 철도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 이사장은 미얀마 장관에게 철도 건설과 운영의 분리, 녹색 성장 전략에 따른 철도 투자 확대 등 한국의 철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했으며, 미얀마 양국의 도심철도 시설 개량 및 복합개발 등과 관련하여 협력을 요청받고 "향후 미얀마 철도 개량 및 신노선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Zay Yar Aung 장관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이 선진국의 경험을 활용해 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뤘던 것처럼,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이 미얀마 교통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얀마 철도교통부 장관은 양국 철도 협력 강화 및 한국의 철도 정책·기술 등을 견학하기 위해 지난 2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방한하였으며 3일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을 시찰하였다. (시설사업본부 김지연 기자)



미얀마 철도교통부 장관,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 방문

총청본부(본부장 김영하)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이아아웅(Zay Yar Aung) 미얀마 철도교통부 장관이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미얀마 철도교통부 장관 일행은 호남고속철도 제1-1공구 상황실에서 호남고속철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듣고, 오송고가와 갈산터널 건설현장을 방문 시찰하였다. 특히 세계 최초로 기존 고속철도를 입체교차하는 오송고가 경부고속철도간 강합성교에 올라 공동관로 기계타설 현장을 시찰하며 교량의 제원과 작업 중 애로사항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국내 고속철도 건설 기술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미얀마장관 일행은 현장을 떠나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공단 및 공사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했고, 호남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을 기원했다. (총청본부 신석근 기자)



청년층 취업난 해소 위한 '13년 청년인턴 (채용우대형) 채용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정부의 '청년층 일자리 제공과 취업역량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2013년도 채용우대형 청년인턴을 공개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정부권장 채용인원 대비 약 24% 증가한 73명으로, 전체 인원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여 학력보다 능력과 실력이 중시되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선도하고 지역인재·여성·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극 채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였으며, 본사 및 각 지사가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로 모집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을 거쳐 오는 5월 1일에 입용할 예정이다. 경영지원처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을 함께 할 젊고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구매 '현대로템 컨소시엄' 과수의시담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김포시에서 위탁한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열차운행시스템 구매사업(약 2203억원 규모) 입찰 결과 단독 응찰한 현대로템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열차운행시스템 구매사업은 지난 3월 5일과 3월 18일, 2차례에 걸친 공개입찰에서 현대로템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하여 유찰되었으나, 추가 5일간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에서도 현대로템 컨소시엄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기술능력평가 시행 결과 기술적격자로 판정돼 지난 28일 수의시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공단은 현대로템 컨소시엄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거쳐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의 공급자를 이달 중순 경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포도시철도사업은 총사업비 1조6553억원으로 2009년 12월 김포시에서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였다. 2018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전 구간을 국내 최초 지하경전철로 건설하며 총연장 23.61km에 정거장 9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12년도 공공기관 동반 성장 평가 1위 달성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2년도 59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공단이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철도 건설 805개 현장의 1, 2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을 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건설근로자들에게도 알리고 수령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하도급 실태점검 강화로 불공정 행위 업체 5개사를 공정위와 관련 지자체에 고발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중소기업과 구매조건부 신제품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고속철도 전차선로 자체 100%를 국산화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의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11년 1건(80억원)에서 '12년 5건(66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입찰 참여를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카메룬·네팔 전기철도건설 실시 설계 등 6건의 해외사업 수주로 49명의 중소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의 좋은 귀감이 됨으로써 최고 우수등급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김광재 이사장 취임 이후 '11년도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12년도에도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됨으로써 명실공히 최고의 동반성장 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